

1896년 러시아 황제 대관식 축하사절단의 서구체험기, 『해천추범(海天秋帆)』과 『환구음초(環瓊唵州)』

홍학회*

<차례>

1. 들어가는 말
2. 사절단 파견의 경위와 여정
3. 사절단의 서구 체험
4. 기록과 실상의 차이
5. 나오는 말

<국문초록>

1896년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이 열리자 조선은 민영환·윤치호·김득련 등 축하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이들은 중국·일본·캐나다·미국·아일랜드·영국·네덜란드·독일·폴란드·몽고·러시아 등 11개국을 7개월에 걸쳐 여행하고 『해천추범』과 『환구음초』 등의 기록을 남겼는데, 서구 자본주의 도시의 변화함과 과학기술의 발달상, 학교와 군대 등 근대식 문물제도의 발달에 경이와 감탄을 표하였다. 그러나 『해천추범』이나 『환구음초』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외교 문체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사신들의 견문을 기록하는 데에만 중점을 두고 있으며, 상대가 누구든 비위를 거스를만한 내용이나 표현은 피하고 사실과는 달리 좋은 내용만 기록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당시에 비밀조약 5개 요청안 등 조선정부가 러시아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었으며, 세계열강의 각축장이었던 조선의 어지러운 국내의 정세 안에서 이들 기록이 외교적인 수사를 구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 대관식, 축하사절단, 서구 체험, 『해천추범』, 『환구음초』

* 한남대학교 강사

1. 들어가는 말

1896년(建陽 원년) 5월 26일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이 열리게 되자 조선은 축하 사절단을 파견하기로 하였다. 고종은 특명전권공사 민영환(閔泳煥 : 1861~1905)을 필두로 수원(隨員) 윤치호(尹致昊 : 1865~1945)·이등 참서관(參書官) 김득련(金得鍊 : 1852~1930) (한어(漢語) 역관)·삼등 참서관 김도일(金道一 : 미상) (러시아어 역관) 등을 파견하였다. 이들은 4월 1일에 한양을 출발하여 중국·일본·캐나다·미국·아일랜드·영국·네덜란드·독일·폴란드·몽고·러시아 등 11개국을 여행하고, 한양을 출발한 지 약 일곱 달, 모스크바를 출발한 지 약 두 달 만인 10월 21에 귀국하였다. 이로써 이들은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 특히 서구를 일주한 셈이 되었다.¹⁾

이때의 여정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바로 민영환의 「해천추범(海天秋帆)」과 김득련의 「환구일기(環球日記)」, 『환구음초(環球吟草)』이다. 「해천추범」, 「환구일기」는 사행의 일정을 날짜별로 기록한 것이고 『환구음초』는 김득련이 사행에서 보고 들은 바를 136수의 한시로 읊어 엮은 기행시집이다. 그런데 「해천추범」은 민영환이 「환구일기」에 약간의 가필을 한 것이고 「환구일기」와 『환구음초』는 작가가 같으므로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즉 세 권의 책이 거의 김득련의 손에서 나왔으며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해천추범」과 「환구일기」는 같은 내용의 산문판, 『환구음초』는 운문판이라고 할 수 있다.²⁾ 이 기록들은 사행 직후에 국내에서 간행되어

1) 「해천추범」에는 8개국-청, 일본, 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 러시아, 몽골-을 거쳤다고 되어 있으나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청, 일본, 당시 영국의 속국 캐나다, 미국, 영국의 속국 아일랜드, 영국, 네덜란드, 독일, 러시아의 속국 폴란드, 러시아, 몽골을 합하여 총 11개국이다.

2) 김득련은 민영환의 개인 비서 격으로 수행하였으며 민영환 대신 사행일기를 기록하

읽혔으며 일본에서까지 간행되었다고 한다. 『윤치호일기』 역시 같은 시기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으나 이는 순전히 개인적인 기록으로 1960년대에야 복간되어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당시 사행의 공식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해천추범 과 『환구음초』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기록들을 통해 지금도 쉽지 않은 세계 일주를 하고, 특히 서구라는 낯선 땅을 반년 넘게 체험하고 돌아온 외교사절들이 당시의 서구를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보여주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사절단 파견의 경위와 여정

「해천추범」의 서두에서 저자는 조선이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 축하사절단을 파견하게 된 경위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수호조약을 맺은 지 십여 년이 되었으나 조정에 일이 많고 길이 아득히 멀어 사신을 보내는 것이 늦었다. 그런데 5월 26일 러시아 황제 대관식을 맞이하여 오대양의 각국 사신들이 서로 하례한다 하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또한 사신을 보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³⁾

즉 조선이 러시아와 수호조약을 맺은 지 오래되었으나 그동안 한 번도 사신을 보내지 못하였는데, 황제의 대관식을 맞아 세계 각국에서 축하사절을 보낸다하니 우리도 보내지 않을 수 없어 사절단을 파견하기로 하였

는 것도 그의 임무였던 것으로 보인다. 윤치호는 『윤치호일기』 4월 11일자에서 “Kim Tuk Nien, the private secretary of Mr. Min, is a fat man.”이라고 기술하였다.

3) 민영환, 「해천추범(海天秋帆)」, “我邦與俄羅斯國 締約通好十餘年 因朝廷多事 途道遙遠 尙遲報聘 今值俄國新皇戴冠即位之期 在於五月二十六日 五洲各國 事价相賀 我邦亦不可無派使.”

다는 것이다. 이에 특명전권공사 민영환 이하 윤치호, 김득련, 김도일 등을 수행원으로 하는 축하사절단이 꾸러지게 되었다.

사절단이 대관식에 참석하고 돌아오기까지의 여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처음에 사절단은 서쪽으로 홍콩을 거쳐 모스크바로 가기로 하고 4월 1일 인천 제물포항을 출발하였다. 그러나 상해에 너무 늦게 도착한 까닭에 배표를 얻지 못하여 할 수 없이 동쪽으로 길을 바꿔 태평양으로 가는 영국 상선 황후호를 타고 일본의 나가사키, 요코하마를 지나 태평양을 건넌 후 기차를 타고 밴쿠버, 뉴욕을 지나 다시 대서양을 건넌 후 아일랜드, 런던, 네덜란드, 베를린, 폴란드, 몽고를 거쳐 5월 20일 모스크바에 도착하였다. 이는 서쪽으로 가는 길보다 수십일쯤 더 걸리는 코스였다. 드디어 5월 26일 대관식장에 나아갔으나 모자를 벗지 않으면 들여보내지 않는다고 하여 정작 식장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중국, 터키, 페르시아의 공사와 함께 대관식이 열리는 예배당 밖에서 구경만 하였다. 대관식이 끝난 후에는 바로 돌아오지 않고 약 석 달 동안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머물면서 각종 시설을 구경하다가 8월 26일에야 귀국길에 올랐다. 처음에는 러시아 남쪽으로 귀국하려 하였으나 괴질이 든다는 소식을 듣고 북쪽으로 방향을 돌려 시베리아를 횡단하게 되었다.

시베리아를 횡단한 귀국길은 매우 험난하였다. 8월 19일에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떠난 이후 10월 21일 인천항에 도착하기까지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기차와 배를 수십 번씩 갈아타고 시베리아를 횡단했는데, 심지어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실카강에 이르는 지역에는 철도가 없어 사륜마차를 타고 18일을 꼬박 달리기도 하였다. 이 길은 북으로 돌아 동으로 향하는 좁고 험한 길로, 눈이 쌓이고 북풍이 불어 추위를 견디기 어려운데다 연로에 속소나 음식점이 별로 없어 차 안에서 다과로 끼니를 때우는 등 자기도 먹지도 못하고 무척 고생하였다. 특히 마차로 갈 때에는 길이 제대

로 닦이지 않아 마차가 요동을 치거나 진펄에 빠지기도 하였고, 추운 날씨에 바람을 마시며 노숙한 지가 근 20일이나 되어 감기와 기침으로 온몸이 다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였다.⁴⁾

그러나 고생스러운 여정에도 보람이 없지는 않아 사절단은 시베리아를 횡단하면서 러시아 측의 적극적인 협조로 각종 행사와 시설을 시찰할 수 있었다. 시베리아 한복판에 위치한 이르쿠츠크 시(市)의 변화함에 놀라고, 해군기기처, 박물관, 사관학교, 여학교, 총과 탄약을 만드는 기기창, 소방서, 박람회 구경을 하고 시베리아 철도 공사 현장을 시찰하였으며 연병장에서 기병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둘러보았다. 또한 연해주에 도착해서는 뜻하지 않게 조선 유민들을 만나 그 실태를 파악할 기회를 갖기도 하였다. 결국 계획했던 바는 아니지만 조선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던 러시아의 의도로 인해 민영환 일행은 시베리아의 각종 근대 시설 및 조선 유민들의 실태를 목격할 수 있었다.

3. 사절단의 서구 체험

1) 서구의 생활문화와 여성상

사절단은 4월 1일 상하이로 향하는 러시아 군함에서 처음 양식을 먹었는데 ‘요리가 깨끗하고 비위에 맞다.(饌品精潔可以醒胃)’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음식이 순차적으로 나오며 상 위에서 나이프와 포크, 스푼 등을 직접 사용하고 디저트로 커피를 마시는 낯선 풍경을 시로 읊었다.

4) 9월 4일~23일 일기 참조

舖巾長桌食單開 수건 깔린 긴 식탁에 메뉴판 펼쳐있고
 牛奶麵包當面堆 우유며 빵이 눈앞에 쌓여있네.
 羹肉魚蔬供次第 스프, 고기, 생선, 샐러드 차례로 나오고
 刀叉匙櫛換輪回 나이프, 포크, 스푼, 접시 번갈아 사용하네.
 不時珍果登玻架 때 아닌 진귀한 과일 유리그릇에 올라있고
 各樣香醪滿瑪杯 갖가지 향기로운 술 유리잔에 가득하네.
 終到珈琲茶進後 끝으로 커피 한 잔 마신 다음
 長廊散步吸烟來 긴 복도를 서성이며 담배를 피우네.
 <喫洋餐戲題>

김득련은 우유와 빵이 눈앞에 ‘쌓여있’고 스프, 고기, 생선, 샐러드 등 각종 음식이 차례로 나오며 ‘진귀한’ 과일과 ‘향기로운’ 와인이 유리그릇에 담겨있고 커피를 마신 후 담배를 피운다며 서구인들이 식사하는 광경을 풍요롭고 여유 있는 모습으로 스케치하고 있다. 이 때 뿐 아니라 이후에도 서구 여행 중 식사 초대를 받으면 “접대가 친절하고 술과 안주가 정결하여 즐겁게 놀다가 왔다.”⁵⁾면서 서구의 음식이 깨끗하고 맛이 좋으며 무엇보다 식사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기록하였다. 특히 프랑스 음식은 “맛이 더욱 깔끔하고 호사스럽다.”며 다른 나라 음식에 비해 시각적 아름다움까지 갖고 있음을 지적하였다.⁶⁾

사절단은 또 서구인들이 기본적으로 점잖고 순후하다고 보았다. 런던에 가보니 인구가 500만이요, 뉴욕보다 웅장하여 변화함이 세계 제일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길에 다니는 사람들이 점잖아 시끄럽게 떠드는 일이 없어 말굽소리와 수레바퀴 소리만 들린다고 하였다.⁷⁾ 김득련은 그의 시에

5) 민영환, 위의 책, 7월 2일 “申正막악請夕餐於其家 其夫人即我京俄館所住花草夫人之兄也 接待甚款酒饌精潔 暢歡而歸.”

6) 위의 책, 7월 6일 “今日因廚子有病 早晚餐往喫於棧舍 饌品依法國式 味尤精侈.”

7) 위의 책, 5월 16일 “此都居人五百萬 衢街市肆屋宇車馬紐約相等 而其雄健過之 地

서 런던을 패권 국가 영국의 ‘명도(名都)’라고 부르며 사람들 사이에 신의
가 있고 풍요로우며 풍속과 경치가 아름다워 마치 신선경과 같다고 표현
하기도 하였다.

政治倫敦盛 런던은 정치가 훌륭하여
君民意共孚 임금과 백성이 서로 신의 있어
五洲稱霸國 세계의 패권국가라 일컬어지며
千載鎮名都 천년동안 명도(名都)로 자리잡았네.
天上神仙境 천상의 신선경이요,
人間富貴圖 인간의 부귀를 도모하는데
我來觀俗美 내 와서 풍속의 아름다움을 보니
花月滿城衢 꽃과 달이 거리에 가득하구나.
<入英都倫敦>

또한 러시아에서는 빈민도 길에서 물건을 파는 등 자기 분수대로 먹고
살아가지 구걸을 하는 걸인이 없으며, 걸인이라 할지라도 죽을상만 하고
있기보다는 악기로 음악을 연주하고 듣는 사람이 돈을 줄 때까지 기다리
는 등 나름의 값을 하니 이것으로 보아 나라가 부유하고 풍속이 순후한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⁸⁾ 걸인조차도 그러한데 그 이상의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다는 어조이다.

사절단의 눈에 비친 서구 여성의 모습도 신기한 것이었다.

狹人多 處處街上 掘地作隧道幾層 其中亦有居屋焉貨舖焉鐵路焉車馬往來焉 其
繁盛甲於天下 且行路之人 雍容安靜 少無喧闐 但聞蹄輪之聲 可知國法之嚴明也.”

8) 위의 책, 8월 17일 “按俄都貧民 手執各物 出售街上 率皆守分安業 竭力謀生 鮮有
垂首喪面 赤身跣足 而乞食者雖沿門要錢者 亦持小樂器 彈奏一曲 只待聽者之給
錢多少 可見其國富而俗淳也.”

西國由來重女人 서양에선 예로부터 여자를 위해주니
 不嫌雜坐對佳賓 귀한 손님과 어울려 앉기를 꺼리지 않네.
 接脣握手情尤篤 입 맞추고 악수하니 정이 더욱 도탑고
 呼酒評茶話更新 술 시키고 차 맛보며 이야기 더욱 새로워라.

柳如腰細玉如肥 버들 같은 가는 허리, 옥 같은 살결
 不用紅粧不畫眉 붉은 단장도 눈썹도 그리지 않았건만
 艷態天然皆自有 고운 자태 본래부터 타고났으니
 娉婷裊娜似難支 어여쁘고 가냘픈 차마 가누기도 어렵네.

首飾明珠面罩紗 머리엔 구슬 장식 얼굴에는 망사 너울.
 扶登雙馬碧油車 쌍두마차에 부축하여 태워주니
 佷郎携手星星語 낭군과 손잡고 도란도란 말하며
 盡日公園遍看花 온종일 공원에서 꽃구경을 두루 하네.

千般含態萬般嬌 온갖 교태 갖은 아양 머금고
 緩步斜陽渡彩橋 해지는 채색다리 천천히 건너가네.
 同伴招招園裡去 서로 부르며 동산 속으로 들어가니
 百花深處聽笙簫 온갖 꽃 그윽한 곳에 피리소리 들려라.

袒臂披胸禮最崇 소매 없고 가슴은 내놓아도 예절 바르며
 有時承命入皇宮 때로는 명을 받아 황궁에 들어
 蝴蝶輕儇爭跳舞 나비보다 사뿐히 춤추니
 長裙拖地繡花叢 치마 자락 땅에 끌려 수놓은 꽃떨기라.
 <西國麗人行>

김득련은 이 시에서 서구에서는 우리나라 등 동양과는 달리 남성이 여성을 위해주며, 남녀가 한자리에 어울려 앉아 대등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악수하고 입을 맞추는 등 신체 접촉을 하며, 여성은 소매가 없고 가슴이 드러난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성의 행동거지가 정답고 예절 바르다며 칭찬하고, 남녀 간에 자연스럽게 애정을 표현하는 모습을 호감을 가지고 표현하였다. 뿐만 아니라 버들가지 같이 날씬한 몸매와 옥 같이 하얀 피부, 타고난 미모, 교태 어린 행동, 나비처럼 춤추는 모습 등을 열거하며 서양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칭송하기까지 하였다. 이전의 사행록에서는 중국이나 일본에 사신으로 갔던 이들이 이국 여성의 화려한 옷차림이나 남녀가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 보통 야만적이고 음란하다는 반응을 보이곤 했다. 그러나 이 시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여성의 모습을 동경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정양완은 이에 대해 “상스럽다거나 잡스럽게 여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나비들이 어울리듯 새들이 어우러지듯 자연 그대로를 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걸치레에서 벗어난 그들 역관의 생활습관의 덕택인지도 모른다...그들의 가식 없음이 정(情) 있으면서도 이목만을 너무 두려워하여 표현도 못하는 우리네의 생활에 대한 한 반기, 자연애의 복귀를 바라는 어떤 몸짓같이도 느껴진다.”⁹⁾라고 하여 김득련의 이러한 태도가 끊임없이 새로운 문물을 접하고 지체에 얽매이지 않는 역관(譯官) 특유의 개방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하였다.

사절단은 또 여성의 자유연애결혼에 대해 언급하면서, 서양 여성은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자유롭게 남자를 사귀다가 마음이 맞으면 결혼을 결정한다고 하였다.¹⁰⁾ 자유연애를 하는 남성이 있으면 역시 자유연애를 하는 여성도 있기 마련인데 굳이 여성의 자유연애결혼만을 언급한 것을

9) 정양완, 『『환구음초』에 대하여』, 『한국한문학회연구』 2집, 1977, pp.146~147.

10) 민영환, 위의 책, 8월 7일, “按西俗 女子無論貴賤 未嫁之前 從遊男友 擇其意合情投者 面定婚嫁.”

보면, 19세기 조선 남성의 눈에 여성이 자유분방하게 연애를 하고 스스로 결혼을 결정한다는 것이 매우 신기하게 느껴진 듯하다. 그러나 역시 상스럽다거나 오랑캐의 풍속이라는 등의 비난을 하지는 않고 있다.

2) 기술 문명의 발달과 합리적 사고

사절단이 사행을 떠나기 전부터 가장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 바로 서구 자본주의 기술 문명의 발달상이었다. 민영환 일행은 뉴욕, 런던 등 ‘세계 최고의 도시’를 지나면서 근대 자본주의의 변화함에 놀라움을 느꼈다. 몬트리올의 변화함도 놀라운데 뉴욕에 도착하여보니 모든 설비와 구조가 몬트리올보다 백배나 되어 안목의 황홀함을 말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¹¹⁾ 자로 켄 듯한 도로는 사통팔달하고 도로의 좌우에는 10여 층의 집이 즐비한데 밤새 전등과 가스불이 밝게 켜있고 밤낮으로 사람과 거마(車馬)가 꼬리에 꼬리를 잇고 사시사철 음악장, 유희장이 쉴 때가 없으니,¹²⁾ 김득륜은 이러한 광경을 <뉴욕의 풍요롭고 변화함을 말로 하고 글로 쓰기 어려워라.>라는 제목의 한시에 담기도 하였다.

長春園裏無愁地 장춘원 안에 시름없는 땅,
不夜城中極樂天 불야성 안에 극락세계로다.
港內居人三百萬 항구에 거주하는 인구 삼백만이
揮金如土酒如泉 돈을 흩처럼, 술을 샘처럼 뿌리는구나.
<紐約之殷富繁華 口難形言 筆難記述>

11) 민영환, 위의 책, 5월 6일 “亥初到紐約 諸般布置百倍於먼트리올 眼目恍惚 不能形容 真堪著名於地球上也.”

12) 위의 책, 5월 8일, “街衢四通八達 廣狹皆尺量 其直如髮 左右市肆自四五層至十餘層 金碧輝煌 夜則電煤通明 星月奪光... 居人近三百萬 肩磨轂擊 晝宵不絕 笙調遊嬉四時不息 可謂長春園裏無愁地 不夜城中極樂天.”

런던에 도착해서는 또 런던이 뉴욕보다 더 웅장하며 ‘국태민안의 회호세계(國泰民安 眞熙皞之世)’이자 ‘신선경(神仙境)’이라고까지 표현하였다.¹³⁾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보고는 “참으로 대수도(眞雄都也)”¹⁴⁾라고 감탄하였고, ‘시베리아의 파리’라고 불리는 이르쿠츠크에 도착하여서는 “인물이 수려하며 거리위에 수레바퀴 소리가 그치지 않고 복잡하매 참 크게 변화한 도회다. 몇 천 리 황량한 벌판에 이러한 시설은 참 의외다. 이것은 러시아 상하가 정치를 잘하여 날로 문명하여 가는 까닭이요, 참 부러운 일이다.”라고 하면서 부러운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기도 하였다.¹⁵⁾ 갖은 고생을 하며 시베리아 벌판을 달리다가 뜻밖에 변화한 도시를 만나 더욱 경이로운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사절단은 또 과학기술의 발달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엘리베이터와 기차를 타보고 그 빠르고 편리함에 감탄하였으며 뉴욕의 전기박람회에서도 축음기에 녹음된 폭포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전기로 순식간에 차도 끊이고 과자도 구우며 심지어는 배나 차를 달리게 할 수도 있다고 하였으며, 활동사진을 보고서는 ‘별안간 앞 벽에 그림자가 비치면서 사람이 가고 말이 가는 것이 천태만상으로 활동을 하며 꼭 실제와 같다. 화폭을 거울에 비치고 전기로 움직이게 한 것이라 하나 그 이치는 알 수가 없다.’¹⁶⁾고 하며 신기해하였다.

사회기반시설의 확충과 농어업 및 방직 기술 등의 발달상도 민생 차원

13) 위의 책, 5월 16일.

14) 위의 책, 6월 9일.

15) 위의 책, 9월 12일 “人物秀麗 街上輪蹄之聲熱鬧不絕 眞大都繁華之地 幾千里荒漠之濱 豈意有此開眼處 此莫非上下圖治 日進文明之致 令人羨歎不已.”

16) 위의 책, 6월 17일 “茂初往生物院入一屋黑洞 洞忽前壁 玻璃明亮 有影來照 或人行馬馳或男女調戲 或飲酒跳舞 千態萬象 活動逼真 見者無不詫異 其法以畫幅照鏡 以電氣移搨搖動云 然莫能究其妙也.”

에서 중요한 관심사였다. 「해천추범」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상수도 시설에서 수돗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물을 걸러내는 곳을 가보았다. 땅 속에 관을 묻어 네바강물을 끌어들인다. 두 곳에 물을 끌어올리는 기계 18대를 설치하고 그 아래에 철망을 두어 더러운 것을 걸러낸 뒤에 물 걸러내는 기계로 끌어들이면 철체가 받아 미세한 먼지를 다 걸러낸다. 그 뒤에 석굴 같은 저수지로 끌어들인다. 아래에는 큰 돌을 깔고 중간에는 작은 돌맹이를 깔고 위에는 가는 모래를 퍼서 깨끗하고 평순하게 한다. 흘러서 격수기(激水機) 있는 데로 흐르면 190척 높이에서 부딪혔다가 다시 떨어진다. 땅 속에 관을 묻어 각처로 나누어 보내니 한 도 시에서 일용하는 물이 모두 다 여기에서 나온다.¹⁷⁾

더러운 물이 철망과 철체, 큰 돌, 작은 돌, 가는 모래를 거치면서 불순물이 걸러지는 과정을 자세히 서술하고 이곳에서 나오는 물이 도시 각처로 분파되는데 1리가 넘는 거리를 가는 동안 한 방울도 물이 새지 않는다고 ‘참 큰 시설이요, 꼭 편리한 일’이라고 감탄하였다.¹⁸⁾ 이들은 또 상트페테르부르크 앞바다에서 50년 동안 물속을 파고 양안에 돌을 쌓아 뱃길을 만든 것을 보았고, 시베리아에서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15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대대적인 철도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도 목도하였다. 사절단은 이러한 광경을 보면서 막대한 비용과 인력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 나라를 이롭게 하고 백성을 편리하게 하는데 힘쓰는 데

17) 위의 책, 7월 21일 “往觀瀉水處 埋管地中 引入曳瓦江水 兩處設升水機十八坐 下置鐵網 麤穢自罹 轉引到瀉水機 以鐵篩承之 盡瀉微細之滓 引入儲水處 (如石窟中) 下鋪大石 中鋪小石塊 上鋪細沙 淨而安之 流到激水機 高一百九十尺 激而復下 以管理地 分派各處 一都日用之水 悉由於此也 (都內無鑿井汲水之勞)”

18) 위의 책, 7월 21일 “自引入江水至分派處 相距里許 未見一勾之漏外 眞大經綸極便利之事也.”

감탄하였고, 특히 시베리아 철도를 보고서는 러시아가 먼 앞날의 일까지 깊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¹⁹⁾

사절단은 또 농업박물관에서 씨 뿌리고 수확하고 방아 찧는 기계와 수차를 보고, 인공 양어장(養魚場)에서 물고기 기르는 방법을 세심히 관찰하였다. 특히 수차(水車)를 보고는 “각종 수차가 다 훌륭하니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한다면 좋은 논 몇 백만 이랑을 개척할 수 있을 텐데 창시하여 사용할 사람이 없으니 개탄할 일”²⁰⁾이라고 하였다. 「해천추범」은 사행일정의 기록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개인의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 편인데 이 부분에서는 유난히도 애석해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농경 국가인 조선에게 있어서 가뭄 극복은 여간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사절단은 러시아 정부의 안내로 맥주 제조소, 조지소(造紙所), 면포 직조소, 면포 직염소, 주전소(鑄錢所) 등 각종 산업시설을 방문하기도 하였는데, 이런 시설들을 둘러보면서 무엇보다 이 모든 일들을 다 기계로 하는데 기계가 공교하여 적은 인력으로 많은 양의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부러워하였다.

당대의 유학자 황현(黃玹 : 1855~1910)은 개화란 ‘개물화민(開物化民)’ 즉 문명을 열고 백성을 계몽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친현(親賢), 원간(遠姦), 애민(愛民), 절용(節用), 신상필벌(信賞必罰) 등의 근본을 무시하고 군사, 기술, 무역과 같은 말단에만 매달리면 진정한 개화를 이룰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²¹⁾ 황현과 같은 위정척사파는 말할 것도 없고 개화 사상가들 역시

19) 위의 책, 7월 13일 “聞此處昔未能行大船 五六十年来 掘開通海 兩岸築石 以障波衝 其費財用力甚多 然利國便民之事 不惜財力 每如是也。”

9월 22일 “鐵路之役 處處方張 期於三年內竣工 則自彼得至海參威 一望間可抵云 不惜巨費 不憚人力 如是作爲可見其謀深遠也。”

20) 위의 책, 6월 29일 “各樣水車盡美 此若用於我東 可起良畝幾萬萬頃 而未有創用之人 不勝歎惜。”

서구의 기술문명은 받아들여 동양의 정신문화는 지켜야한다는 동도서기(東道西器)론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해천추범」이나 『환구음초』는 특이하게도 당시 대다수 지식인들이 ‘말단’이라고 생각한 서구의 기술 문명에만 관심을 보이고, 소위 ‘근본’적인 것, 즉 동양의 전통적 가치관이나 세계관의 우월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구에서는 자연 과학이 발달하여 합리적인 사고가 발달하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까지 하였는데, 예를 들어 러시아의 천문대를 방문하여 천체의 운행에 관한 설명을 들으면서 서구에서는 천문학이 발달하여 혜성이 언제 나타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혜성의 출현을 우리나라처럼 재앙의 조짐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혜성이 임금의 부덕이나 나라의 변란을 암시하는 불길한 존재가 아니라 다만 우주자연의 현상으로 예측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다.²²⁾ 또한 사절단은 풍수지리설에도 의문을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풍수지리를 중요하게 여겨 소위 ‘명당(明堂)’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역대 황제의 무덤을 다 한자리에 모아 놓는데 그런데도 서구에서 가장 강력한 병력을 가지고 세계에 군림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 과연 풍수설은 믿을 만한 것이 못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회의를 하고 있다.²³⁾ 기록된 내용으로만 보면 사절단은 정신문화까지도 서구에서 배울

21) 黃玆, 『梅泉全集』 권6, <言事疏>, “夫開化云者 非別件也 不過開物化民之謂 則開物化民可以無其本而致之乎 若親賢遠姦愛民節用信賞必罰之類 卽所謂本也 若練軍伍利機械通商販之類 卽所謂末也 ... 今考彼所謂萬國史 則其興也 必由於立其本 苟無其本 雖強必斃 興亡之跡 種種可考...”

22) 김득런, 『환구음초』, “欽天監外有高臺 星斗皆從鏡裡來 西國尤精推算法 預知彗孛不爲災” <天文臺>
민영환, 위의 책, 7월 31일 “蓋西人之格致 尤精於天文 慧孛之幾歲一見 預爲推數 不以爲災也.”

23) “禮拜堂中葬國君 鍊闌干裡玉爲墳 若使堪輿論此地 青烏秘訣盡虛文 ” <俄列皇陵墓盡在一堂>

점이 있음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3) 근대적 문물제도, 학교와 군대

학교나 군대 등 근대식 문물제도도 사절단의 관심사였다. 「해천추범」에는 서양의 교육제도에 대하여 기술한 부분이 있는데, 남녀를 불문하고 8살이 되면 다 학교에 입학하고 만약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부모에게 벌을 준다고 하였다. 그 당시에 이미 의무교육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병어리, 소경, 귀머거리와 같은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학교도 있고, 고아나 빈민을 가르치는 의숙이 있어 국비로 먹고 가르치며, 각급 학교에 문, 무, 상, 농, 공을 각각 전문으로 가르치는 학교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전 국민이 모두 다 한 가지씩 재주가 있고 문자를 못 읽는 사람이 없으니 참 아름답고 장원한 시설이라고 찬탄하였다.²⁴⁾ 특히 독일의 교육에 주목하였는데, 학교제도와 학문이 발전한 가운데 의학과 음악이 특히 뛰어나 다른 나라 학자들도 이 나라에서 다시 공부할 하여야 행세를 한다고 하였다.²⁵⁾ 모스크바에서는 도서관을 견학하기도 하였다. 라틴과 유태의 글, 마호메트 경문, 몽골문, 서장(西藏) 경전, 영국·프랑스·네덜란드의 서적 수천 종, 한문 경전 10여 종과 소설 10만여 권 외에 천문·지리·산학·의학·화학 분야의 책들이 분류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 당시에 모스크바가 이미 세계도시였음을 알 수 있는데, 도서관 한편에는 열람실이 있어 마음대로 책을 볼 수 있고 밤에도 전등을

24) 민영환, 위의 책, 8월 9일 “按各西國教民之法 男女八歲皆入學堂 若不入 罪其父母 啞聾瞽盲皆有學堂以教之 貧窮及孤幼者亦收付義塾 一國內學塾林立 有大中小隨才分科 文武商農工 有專門之學 通國之人各執一藝 亦無不識字通文 可謂盛且美矣.”

25) 위의 책, 5월 17일 “...自戰法以來 富強蒸蒸日上 孰莫能比 學校之精美 陸軍之勁銳 醫術音律至矣盡矣 各國諸學者 雖已卒業 必得校正於此方然後 可以行于世云.”

켜고 책을 볼 수 있으니 “참으로 학문을 권면하는 큰 시설(眞勸學之大學也)”이라고 거듭 감탄 하였다.²⁶⁾ 이에 대해 감득련은 <각급 학교(各學校)>라는 제목으로 시를 짓기도 하였다.

京鄉林立塾庠多 경향 각처에 글방과 학교 가득하니
農士工商各有科 사농공상(土農工商)의 각 과가 다 있어
男女八齡皆入學 남녀가 8살이면 다 학교에 들어가
治書無不琢如磨 글을 익히며 연마하지 않음이 없구나.

사절단은 근대식 군대도 관심을 갖고 시찰하였는데, 민영환은 병조판서를 두 차례 역임하였고 러시아 방문 이후 다시 군부대신에 임명되어 근대적 군대 양성에 주력한 사람이다. 그런 만큼 근대식 군사제도와 신식 무기 등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러시아 역시 적극적으로 군사시설을 시찰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다.

1871년에 새로 제도를 개정하여 전 국민이 21세만 되면 의사의 검진을 거쳐 병 들고 약한 사람 외에는 매년 병사로 입영시켜 6년 동안을 조련한다... 지금 동서남북 사방 러시아의 보병이 36만 4천여 명이고, 기병이 3만 8,300여 명이고, 포병이 4만 1천여 명이고, 길 만들고 다리 놓는 공병이 1만 3천여 명이고, 제대한 병사가 31만여 명이고, 장교가 3만 3천여 명이다. 연전에 터키와 전쟁할 때에 병정을 120여만 명으로 늘렸고, 장교도 3만 9천여 명까지 늘렸다. 현재는 군인의 수가 평시에는 83만 5천여 명이고, 전시에는 251만 2천여 명과 전마 49만 7천여 필이다. 병정이 6년 동안 영내에 있을 때는 관청에서 군복, 기계, 쌀나무, 물, 말먹이를 주며 군량이 없으면 혹 1~2개월 가량 휴가를 준다. 이것이 서양 각국의 양병하는 방식이다.²⁷⁾

26) 위의 책, 8월 11일.

「해천추범 6월 27일자인 이 글에는 러시아 육군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보병, 기병, 포병, 공병, 의무병과 장교의 구체적인 수, 그리고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조사하여 기록하고 있다. 며칠 뒤에는 해군을 둘러보고 병사와 장교, 군함의 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멀리서 철갑군함을 바라보거나 직접 군함에 올라본 경험을 서술하였다.²⁸⁾ 사실만을 기록하고 어떤 느낌도 표현하지 않고 있지만 자세히 기록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무기 제조하는 곳도 시찰하였다. 조선창에서 1만 2천 톤짜리 군함을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았고, 서너 군데의 제조소에서 대포 및 각종 탄환을 제조하는 것을 보았다. 크고 작은 대포가 수없이 쌓였고 큰 것은 50리 거리를 갈 수 있는데 영국과 독일에서 수입한 기계로 만들더라고 하였다.²⁹⁾ 해군기기처에서는 해군이 가죽으로 만든 잠수복을 입고 10길 아래 물 밑으로 잠수하여 물 밖의 사람들과 교신을 나누는 시범을 보였고, 하바로프스크 연병장에서는 기병들이 조련하는 광경을 보기도 하였다. 사절단은 이러한 시설들을 시찰하면서 “편리하고 공교한 것이 볼수록 기이하다.”³⁰⁾, “잠수하는 참 좋은 방법이다.”³¹⁾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러시아 측은 그들

27) 위의 책, 6월 27일 “至西曆一千八百七十一年 俄皇改定新章 通國民丁凡年至二十一歲者 經醫查驗 疲弱外每年充伍入營 操鍊六年... 東西中北四俄之步兵 三十六萬四千餘 馬兵三萬八千三百餘 礮兵四萬一千餘 開道搭橋等工兵一萬三千餘 回籍聽調兵三十一萬餘 武官三萬三千餘矣 年前有事於土耳其 兵額增至一百二十餘萬 官額增至三萬九千餘 現今兵額 平時八十三萬五千餘 戰時二百五十一萬二千餘 戰馬四十九萬七千餘匹 各兵在營六年時 官給軍衣器械薪水藜草 而無餉料 或給一二個月告暇 此各西邦通國養兵之法也.”

28) 위의 책, 7월 20일.

29) 위의 책, 7월 17일 “已初軍部官又來 同往砲彈車製造所 其便易巧徒 愈看愈奇 機械多從英德兩國來矣.”

30) 위의 글.

31) 위의 책, 8월 22일 “眞潛水之良法也.”

의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듯 적극적으로 사절단에게 군사시설을 시찰케 하였다. 이에 대해 사절단 역시 관심을 갖고 자세히 기록하면서 적극적으로 보고 배우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해천추범」이나 『환구음초』를 읽으면서 못내 아쉬운 것은, 군사문제에 대해 논하면서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의 군사력에 위협을 느끼거나 군국주의를 경계하는 목소리는 전혀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때로는 국제정세에 무지몽매한 모습을 보이기가 하는데, 아일랜드가 스스로 주장하여 영국에 합병되었다거나³²⁾ 폴란드의 정치가 부패하고 관리가 백성을 학대하여 러시아 등 3국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등³³⁾ 당시 서구 열강들의 야욕과 힘의 논리를 인식하지 못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한 군데에서만 매일 40만개의 탄환을 제조하는 등 날마다 어마어마한 양의 무기를 만드는 제조장을 둘러보는 “세계 각국이 모두 이와 같으니 장차 어디 쓰려는 것인가... 하늘이 우리 생명을 편안히 하시려 한다면 이러한 제조는 하지 않고 농기만 제조할 날이 꼭 올 것이다.”³⁴⁾라고 하여 안이하고 순진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당시 우리가 처한 긴박한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나 위기의식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귀국하는 길에 곳곳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 건설 현장을 목격하고서도 “3년 이내에 준공할 예정이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15일이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도달한다고 한다.”고만 하였지 그 철도가 한반도에서 각종 이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러시아의 야욕을 상징하는 것임은 지적하지 못하였다. 사절단은 서구 군사시설

32) 위의 책, 5월 15일 “此舊愛蘭國港口 此國數百年前 自主合併於英.”

33) 위의 책, 5월 18일 “聞此地往昔最開化自主之國 百餘年前政治漸衰 仕族凌虐百姓 內亂屢起 未能鎮定 末乃爲俄奧法三國 分裂其地 此可爲謀國者之鑑戒也.”

34) 위의 책, 7월 18일 “世界各邦亦當如是 將用於何處乎 上天欲安生靈 必有盡鎖兵鑄農器之日也.”

의 발달상에만 지대한 관심을 보일 뿐, 그것이 조선을 향할 수도 있는 것
임에 대한 각성은 전혀 보여주지 못한 것이다.

4. 기록과 실상의 차이

사절단은 뉴욕, 런던, 베를린,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서구 자본주의 도시
의 변화함을 목도하고 과학기술의 발달상을 직접 체험하였다. 러시아에서
는 각종 산업 시설 및 근대식 학교와 군대를 둘러보고 공원·식물원·동
물원·극장·영화관·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구경하였으며, 시베리아를
횡단하면서 블라디보스토크 등지에 거주하던 조선 유민들을 만나보기도
하였다. 이로써 사절단은 한국인 최초로 서구일주를 하게 되었는데, 이 사
행을 통해 서구 열강들의 근대화된 문물제도를 직접 체험하고 서구의 세
련된 풍속과 발달된 기술 문명에 경이와 감탄을 표하였다. 이들은 동양과
는 다른 서구의 풍속을 야만적이라거나 음란하다고 보지 않고 서구의 제
반 문물을 이용후생의 관점에서 세심하게 살폈다. 위정척사파는 물론 동
도서기론을 주장하던 다른 개화 사상가들과도 달리 동양의 정신문화는
배제하고 서구의 물질문명에만 초점을 두면서 의욕적으로 서구의 개화된
문물을 배우고 도입하고자 하였다. 이들에게 있어 개화는 물질문명의 측
면에서 서구식 근대화를 이룩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런 점에서 사절단은
서구의 문물에 대해 상당히 급진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해천추범」이나 『환구음초』에 실려 있는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어 보인다. 여기저기서 기록과 실상에 차이가 있다는
증거가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해천추범」이나 『환구음초』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외교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사신들의 여행 견문을 기록하는 데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 또 같은 주제를 다루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비위를 거스를만한 내용이나 표현은 피하고 좋은 방향으로만 보이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조선이 러시아에 사절단을 파견하게 된 실제 경위와, 세계일주 및 귀국의 여정을 택하게 된 속사정이 「해천추범」 등에 기록된 바와 약간 다르다. 「해천추범」에서는 축하사절단을 파견하게 된 경위를 “러시아 황제 대관식에 각국의 하례사가 파견되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또한 사신을 보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사절단을 파견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는 일본의 명성황후 시해사건으로 신변에 위협을 느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파천(播遷)하여 있던 시기로, 실상은 러시아와 손잡고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비밀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절단을 파견한 것이었다. 즉 환궁 이후 고종의 신변보호를 위한 왕실수비병을 파견하고 경비를 지원해줄 것, 일본에서 빌린 국채를 상환하기 위해 300만엔의 차관을 제공해줄 것, 조선과 러시아간의 전신을 가설하고 일본의 침략을 막아줄 수 있는 재정고문과 군사고문을 파견해줄 것 등 다섯 개 안을 요구하기 위해 사절단을 파견하였다.³⁵⁾ 물론 러시아는 이미 러청 비밀조약(6월 2일)과 러일협정(6월 9일)에서 조선 문제에 대한 공동 간섭을 내용으로 하는 조약을 맺은 상태라 우리 측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절단은 외부대신 로바노프(6월 5일), 러시아 황제(6월 6일), 탁지부대신 위테(6월 7일)와 차례로 협상을 벌이고, 모스크바에서 확답을 듣지 못하자 피서를 떠나는 황제를 따라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따라가 협상을 계속하였다. 결국 군사고문과 재정고문을 파견하는 것 외의 다른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빈손으로 귀국길에

35) 『윤치호일기』에 자세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오르게 되었는데(8월 26일), 대관식이 끝난 뒤에도 두 달 반이 넘도록 러시아에 머물며 귀국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해천추범 등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여정을 택하게 된 속사정 또한 기록과 다르다. 「해천추범 에서는 상해에서 프랑스 배로 홍콩을 거쳐 러시아로 가려 하였으나 배표를 구할 수 없어 태평양으로 가는 배를 타고 요코하마, 밴쿠버, 뉴욕, 리버풀, 런던, 플러싱, 베를린, 바르샤바, 몽고 등지를 지나 러시아로 들어감으로써 우연히 세계 일주를 하게 된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윤치호일기』를 보면 길 떠나기 전부터 민영환이 유럽 일주를 요구한 것을 알 수 있다.

...민영환은 베베르 공사가 어떤 실책에 대한 비난도 막아주고 최소한 1년 이상 유럽을 여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자 마침내 떠나기로 결심하였다.³⁶⁾

즉 가는 길이든 오는 길이든 서구 여러 국가를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니 이는 서구의 발달된 문명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였을 것이다. 지나는 곳마다 매우 열심히 계획을 세워 관광을 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영국 리버풀 항구에서 배를 내려 기차를 타고 540리를 가서 오후 2시에 런던에 들어가 구경을 하다가 오후 6시에 다시 기차를 타고 300리를 가서 오후 10시에 퀸스보로에 도착해서 배를 타고 떠나는데 런던에 머무는 그 짧은 시간 동

36) 윤치호, 위의 책, 1896년 3월 30일 “Mr. Min finally decided to go on the condition that Mr. Waeber would promise to protect him from any false accusation to His Majesty and that he(Min) should be allowed to travel in Europe at least a year. Waeber promised to give his support to both of these conditions. This settled Min’s mind to go.”

안 템스강, 웨스트민스터 사원, 하이드 공원 등을 구경하고도 “수정궁, 박물관, 각 학교와 희귀한 볼거리, 옛 서적이 각국 중 최고인데 갈 길이 촉박해서 볼 수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³⁷⁾ 당시 민영환 등 사절단에게 서구 근대문물 체험은 대단히 중요한 경험이었을 것이다. 또한 서구 여러 국가를 순방하면서 혹시 그 나라 정치가들과 접촉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³⁸⁾ 그러나 조선 주재 러시아 공사관 서기관인 스타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였고 민영환 일행이 들르는 곳마다 러시아 영사관 방문 일정을 잡거나 무관들이 나와 영접하여 그럴 수 있는 기회는 원천봉쇄되었다. 이에 대해 「해천추범」에서는 ‘특별 대우를 받는 것(特別優待也)’³⁹⁾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외교적 수사인 것으로 보인다.

「해천추범」에서는 또 사절단이 시베리아를 횡단하여 귀국하게 된 연유를 남쪽 지방에 괴질이 돌아서라고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이와 좀 다르니, 『윤치호일기』에 의하면 민영환은 애초에 갔던 길을 되돌아오는 남방 항해 경로를 선택했었다고 한다. 그러자 스타인이 시베리아를 통과하는 북방 육상 경로가 훨씬 낫다며, 남방경로는 너무 뜨겁고 태풍을 만날 수 있으며 어떠한 이득도 없는 반면에 시베리아로 가면 기후도 좋고 금광, 은광, 시베리아 철도, 모피교역, 러시아와 중국 사이 국경지

37) 민영환, 위의 책, 5월 16일 “水晶宮及博物院各學校奇觀古蹟 冠於各國 而因行期促迫 未能一覽 可恨恨.”

38) 중국의 리홍장이 러시아에 갈 때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등 서구 여러 국가가 리홍장을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그가 유럽을 돌아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기를 바랐으나, 그러는 동안 서구 정치가의 영향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러시아가 수에즈 운하로 리홍장을 마중나가 미리 마련해둔 배에 태워 바로 흑해 북안인 오데사로 데리고 갔다고 한다. 리홍장(李鴻章)의 「遊俄紀事」, 정양완, 『환구음초』에 대하여, 『한국한문학연구』 2집, 1977, pp.156~158에서 재인용.

39) 5월 19일.

대의 실태 등을 볼 수 있어 훨씬 유익하다고 하였다. 이에 민영환이 다시는 남방 경로를 따라 여행할 기회가 없을 것이며, 시베리아 철도가 완성되면 그 때 시베리아를 여행할 수 있고, 광산 등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대답하자 스타인은 북방 경로로 가는 것이 경비도 훨씬 덜 든다고 설득하였다.⁴⁰⁾ 경비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민영환이 이틀 뒤 남방 경로로 가기로 결정하자 스타인은 지금 이집트에 콜레라가 창궐하고 있는데다 적도의 열기도 뜨겁고 역병이 홍콩을 다시 덮칠 수도 있고 태풍도 건디기 어렵다며 다시 생각할 것을 요청하였다.⁴¹⁾ 결국 강요에 가까운 스타인의 집요한 설득에 한동안 망설이다가 7월 22일 북방 경로를 따라가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⁴²⁾ 러시아는 조선의 사절단이 서구를 거

40) 윤치호, 위의 책, 6월 26일 “This p.m. 2, Stein told Mr. Min that, as the Southern route via the Red Sea, would expose Min and his party to intolerable heat and “Typhoon”, without giving them any substantial benefit, the Siberian route would be far more preferable. here, Mr. Min would undergo no climate extremes during this season, while he could see the gold and silver mines, the Siberian Railroad, the fur trade, the conditions of life among the European and Asiatic nations under the Russian sceptre, the frontier relations between Russia and China—things which are certainly more instructive, especially to a Korean officer, than the sun, and seas and sky and possibly the sickness of the Southern route...To this Mr. Min answered that, as he might never have another chance of seeing the places of interest along the Southern route, as he might travel through Siberia when the railroad be completed, as he does not think it worthwhile to see the mines etc... When Stein suggested that the Siberian route would cost him very much less than the Southern, Mr. Min said to me, “the cost is no concern to me..”

41) 위의 책, 6월 28일 “Mr.Min having decided to go by the Southern route, Stein prefers to stay behind. Stein told Min that Son Excellence should take the southern route with the full understanding that Cholera is now raging in Egypt, that the tropical heat is intolerable, that quarantine regulations are bothersome, that the plague may revisit Hong Kong this summer, that typhoon is disagreeable.”

42) 위의 책, 7월 22일 “Kim told me this p.m.p that Min has decided to take the Siberian route.”

쳐 귀국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고자 했던 것 같다.

그런가하면 일본이나 중국과의 정치적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을 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896년 9월 26일(음력 8월 20일)은 일국의 황후인 명성황후가 다른 곳도 아닌 궁 안에서 일제의 야만적인 총칼 아래 목숨을 잃은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사절단은 귀국길에 명성황후의 기일(忌日)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신(臣) 등이 시베리아 길에서 밤낮으로 급히 가도 새벽에 곡반(哭班)에 당도하지 못하여 정리(情理)의 절박하고 망극함을 억누를 수가 없다. 선실에서 국기를 내걸고 향 피우는 상을 내놓고 촛불을 켜고 관복을 입고 동쪽을 향하여 사배(四拜)하고 서로 향하여 눈물을 뿌렸다.”⁴³⁾라고만 간단하게 기술하였다. 애도를 표하는 데 그쳤을 뿐 진악한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민영환은 더구나 명성황후의 일족으로 일제의 만행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그 누구보다 컸을 터인데도 이렇게 짧게 언급하는 데 그쳤다. 또한 민영환은 러시아에서 만난 리홍장과 조선 내 친일·친청 세력을 두고 서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신경전을 벌였다.⁴⁴⁾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해친추범」이나 『환구음초』는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고 있다.

주변국과의 관계와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뿐만이 아니다. 서양의 생활 문화를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태도 역시 (민영환 등 다른 사절단원의 생각은 모르겠으나) 김득련의 본심과는 전혀 달랐으니, 김득련은 귀국 후 <The Korean Repository>에서 러시아 궁중연회에서 보고 느낀 충격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43) 민영환, 위의 책, 9월 25일.

44) 윤치호, 위의 책, 5월 24일.

“동방예의지국의 나라 조선을 떠나 난생 처음 거대한 여객선에 몸을 싣고 보니 진기한 것 일색이로다. 이상한 색깔이지만 눈 하나는 시원한 서양의 요조숙녀들, 어찌 그리 요란한 옷을 입고 있는가? 내 얼굴이 잘생겨서일까, 아니면 남녀칠세부동석을 몰라서일까. 거침없이 군자의 옆자리에 다가와 재잘대누나. 양반네 진짓상에 웬 쇠스랑과 장도는 등장하는가. 입술이 찢기지 않으면서 접시의 물건을 입에 넣는다는 것은 참으로 고역이구나. 회고 눈 같은 것이 달고 달기에 이번에도 눈 같은 것을 듬뿍 떠서 찻종지에 넣으니 그 갈색 물은 너무 짜서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더라. 노르스름한 절편은 맛도 향기도 고약하구나. 청중이 모인 자리에서 웬 신사가 목살에 힘줄이 돌칠 정도로 소리를 지르니 모두들 그를 우러러 보더라. 서양에서 군자노릇 하기란 원래 저리 힘든가보다. 벌거벗은 것이나 다름없는 소녀가 까치발을 하고 빙빙 돌며 뛰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데, 가녀린 남자를 학대하다니 서양 군자들은 참으로 짐승이구나.”⁴⁵⁾

김득련은 이 글에서 「해천추범 이나 『환구음초』에서 자신이 기술했던 내용을 모조리 뒤엎는 발언을 하고 있다. 서양 여성들의 외모를 두고 눈은 시원하게 크지만 색깔이 이상하며, 옷차림이 너무 요란하고, 남자 옆에 가까이 앉아 거리낌 없이 재잘대는 것이 ‘남녀칠세부동석’ 즉 예의를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또 밥상 위의 포크와 나이프를 보고 웬 쇠스랑과 장도가 양반의 진짓상에 등장하냐며 경악하고 음식을 입안에 넣으면서 입술이 찢어질까 고역이었다고 말하였다. 김득련은 또 서양 음식 중에 노르스름한 절편, 곧 치즈는 맛도 향기도 고약했다고 평하였다. 뿐만 아니라 김득련이 착각한 것이긴 하지만 성악가가 악을 쓰며 노래 부르는 것을 보고 서양에서 군자노릇 하기 힘들겠다고 생각하였으며, 발레리나의 모습을 보고 가녀린 여자를 거의 발가벗겨 학대한다며 서양의 군자들은 짐승

45) 이민원, 「민영환의 외교활동과 외교책」, 『나라사랑』 102집, 2001, p.98에서 재인용,

과 같다고 생각하였다. 결론적으로 동방예의지국의 나라 조선의 관점에서 볼 때 서구의 군자와 여성은 짐승 같고 예의가 없으며 음식 문화는 상스럽고 때로 맛이 고약한 음식도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것이 김득련의 진심이었으며, 어쩌면 이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을 것이다.

김득련은 귀국 후 『환구음초』에 실린 시 때문에 조정의 노여움을 사 좌천당했다고 한다.⁴⁶⁾ 시베리아 유민의 삶을 읊은 시 가운데 ‘탐관오리의 학정을 피해 이주하였으므로 날뽕팔이를 하면서도 편안해 보인다’⁴⁷⁾는 내용이 조정을 모욕했다하여 문제가 된 것이다. 「해천추범」이나 『환구음초』와 같은 책이 처음부터 저자의 개인적인 생각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해천추범」이나 『환구음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액면 그대로 다 믿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이로써 알 수 있으니, 이 기록들은 사절단의 공식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지 민영환이나 김득련 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한 책은 아니었던 것이다.

5. 나오는 말

이전에 나온 사행록들은 보통 방문 국가의 정치나 문화, 인물에 대해서 마음대로 평가하고 때로 비난을 가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천추범」이나 『환구음초』는 그렇지 않았으니, 그 이유가

46) “후손들의 증언에 의하면 김득련은 귀국길에 간도에 들러 그 곳 한인들의 참상을 시로 지어 그것이 국내에 소개된 것을 기회로 조정에서는 그를 남양군수로 좌천시키기도 하였다고 한다.” 김양수, 「조선후기역관가문의 연구-김지남, 김경문 등 우봉김씨 가계를 중심으로」, 『백산학보』 32호, 1985, p.121.

47) “哀彼流民數萬餘 傭畊日日視安居 縱逃貪吏煩苛政 忍處殊邦莽漠墟 巾髻尙存懷故土 姓名聯錄上新書 刷還當有朝廷命 向國誠心莫變初” <題贈我邦流民都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어지러운 국내의 정세 때문이었을 것이다. 당시 조선은 세계 열강의 각축장이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 침략의 야욕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고 러시아와 중국 역시 한반도에서 각종 이권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런 여러 강대국을 배경으로 한 친청파, 친러파, 친일파가 각자의 세력 확장을 위해 각축을 벌이던 상황이었다. 민영환은 사행을 떠나기 전에 “만약 내가 대사로 가면 국왕이 다른 당에게 나를 감시할 비밀 특명을 부여할 것”⁴⁸⁾이라며 자신의 직책을 사임하려 하였고, 윤치호 및 스타인은 러시아 신사유람단인 민경식·주석면 일행이 사행을 감시하기 위해 밀명을 받고 파견된 스파이라고 보았다.⁴⁹⁾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당시의 국내외 정세가 그만큼 복잡했다는 증거일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서구 열강도 한반도를 위시한 동아시아 정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으니, 이런 상황에서는 국제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미묘한 사안에서 말을 아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당시 조선정부가 러시아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비밀조약 5개 요청안과 같이-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좋은 점만 부각시키고 그렇지 않은 점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이유는 『해천추범』이나 『환구음초』가 공식적인 기록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그에 준하는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일 것이다. 『윤치호일기』처럼 순전히 개인적인 기록은 아니라는 전제로 쓰인 것이고, 따라서 상대국가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외교적인 수사를 구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신 사절단은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비유적으로 드러냈던 것으로 보

48) 위의 책, 3월 30일.

49) 위의 책, 5월 30일.

인다. 다음과 같은 글에서 그들의 심중이 은연중에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람들이 미국, 영국, 벨기에, 프랑스, 러시아 사람들에 대해 말하기를, 미국 사람은 속에 있는 말을 다하고 영국 사람은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먹고 벨기에 사람은 무슨 노래든지 다 부르고 프랑스 사람은 무슨 춤이든지 다 추고 러시아 사람은 탐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한다. 이것이 누구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자세히 살펴보니 그 말이 적실하여 기록해 본다.⁵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러시아 사람은 탐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한 마지막 문장이다. 러시아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한 것은 이것이 이 책에서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비밀조약이 결렬된 직후인 7월 6일자에 실린 이야기이다. 당시 민영환 등은 지극히 상심한 상태였는데, 아마도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할 수도 없고 답답한 심정을 해소연할 데도 없어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은 우스개 소리를 전하는 척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뉴욕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페르시아 국왕이 암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영국과 러시아의 알력 다툼에 희생된 것이라며 페르시아가 두 열강 사이에서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고 장차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형세라며 안타까워하였다.⁵¹⁾ 여기서도 역시 남의 나라 일을 말하는 것으로만 보이고 그 밖에 다른 언급은 없다.

50) 위의 책, 7월 6일 “聞有人總論美英義法俄一節 美人無話不言 英人無物不食 義人無曲不譚 法人無式不跳 俄人無所不貪 不知出何人之口 歷歷詳查名實相符 故錄之.”

51) 위의 책, 5월 5일 “聞西人言 波斯國王近爲刺客所弑 此因國中分黨 付於英俄互相 傾軋 都無開明化新之策 至有此變 長子有病 次子當立爲王云 此國間於齊楚 而不能自修 內亂不定 勢將歸併於虎耽之中 良可歎惜也.”

그러나 러시아 및 다른 열강 사이에서 침탈당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니, 페르시아의 상황에 빗대어 당시 조선의 상황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사행은 국내외 정치상황이 매우 복잡한 때, 그러한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조정 관료들의 사행이었다. 그리고 그 기록들 역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했던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실상을 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다르게 말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수록 기록의 이면을, 행간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니 그런 점에서 이 책들은 기록의 표면에 나타난 것만을 가지고 작가의 의식을 살피는 것에 대한 경계가 될 수 있겠다. 공식적 기록으로서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가려 읽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득련, 『환구음초』,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pp.1-65.
 민영환, 「해천추범」, 『민충정공유고』, 국사편찬위원회 편, 탐구당, 1958, pp.69-142.
 윤치호, 『윤치호일기 4』, 국사편찬위원회 편, 탐구당, 1975, pp.1-349.
 황현, 『매천선생문집』, 경인문화사, 1999, pp.1-613.
 고병익, 「로황대관식에의 사행과 한로교섭」, 『역사학보』 28집, 1965, pp.41-70.
 김남이, 「개화기 조선문사의 일본 문물체험과 일본인식」, 『우리한문학사의 해외체험』, 집문당, 2006, pp.333-363.
 박노벽, 『한러 경제관계 20년(1884~1903)』, 한울 아카데미, 1994, pp.1-275.
 이민원, 「아관파천 전후의 한로관계 : 1895~1898」, 한국학대학원 박사논문, 1994, pp.1-234.
 _____, 『명성황후시해와 아관파천 : 한국을 둘러싼 러·일 갈등』, 국학자료원, 2002, pp.1-301.
 정양완, 「『환구음초』에 대하여」, 『한국한문학연구』 2집, 1977, pp.125-162.
 최식, 「여항문학 종말기의 한 양상」, 『한문학보』 4집, 2001, pp.195-226.

ABSTRACT

Haecheonchubeom and *Hwanguemcho*; the travelogues of the Korean Mission to the Russian Emperor's Coronation Ceremony in 1896

Hong, Hak-Hee

Joseon dispatched a congratulatory delegation including Min Yeong-hwan, Yoon Chi-ho, and Kim Deuk-nyeon when the coronation ceremony for the new Russian emperor Nicolai II was to take place in 1896. They traveled through 11 nations: China, Japan, Canada, the United States, Ireland, Britain, the Netherlands, Germany, Poland, Mongolia, and Russia for seven months and wrote travelogues: *Haecheonchubeom* and *Hwanguemcho*. In the travelogues, they expressed their amazement and admiration for the prosperity of the western capitalistic cities,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at of modernistic systems including the educational and military systems. However, the *Haecheonchubeom* and the *Hwanguemcho* have the limits as they never mentioned any diplomatic issues that might arouse political frictions or any information or expression that might displease anyone. They just wrote good aspects of everything they observed and experienced. The reason may be because the government of Joseon had something they aspired of Russia like the five articles of the Secret Treaty, and because they couldn't but use diplomatic rhetoric when Joseon was placed in the turbulent state of affairs inside and outside of country as the world powers struggled for their interests on her territory.

Key Words The coronation ceremony of the Russian emperor Nicolai II, the congratulatory delegation, the experience in the western world, the *Haecheonchubeom*, the *Hwanguemcho*

논문투고일 : 2008. 3. 30
 심사완료일 : 2008. 4. 20
 게재확정일 : 2008. 5. 4